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김 경 호*
(호남대학교)

차 은 진
(호남대학교)

오늘날 중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인 실용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야누스적인 매체로 평가된다. 최근 여러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의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G광역시 중학생 498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심해진다. 둘째,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수준이 낮아진다. 셋째, 중학생의 인터넷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은 줄어든다. 넷째,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조장하고 사이버 비행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용어: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매개효과

* 교신저자: 김경호, 호남대학교(khk944@honam.ac.kr)

■ 투고일: 2012.4.18 ■ 수정일: 2012.5.30 ■ 게재확정일: 2012.6.1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놀이문화의 공간이자 스트레스 해소의 장이고,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는 영역이며,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의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에게 있어 인터넷은 필수적인 실용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야누스적인 매체로 평가되고 있다(Dombrowski et al., 2007; Straker et al., 2009). 인터넷은 나름의 역기능을 갖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의식의 부재, 사이버 비행 등을 들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에 달하지만, 그만큼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0)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의 인터넷 중독자는 191만 3천명으로서 인터넷 중독률은 8.5%이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8%로 국민 평균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이 가운데 고위험군은 2.6%, 잠재적 위험군은 10.2%이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는 인터넷의 오·남용은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양돈규, 2000). 다시 말해, 인터넷 중독 성향은 음란물 유포, 해킹, 바이러스 전파, 스팸메일, 악성 댓글, 개인정보 침해, 엽기자살사이트 운영, 저작권 침해, 청소년 유해 사이트, 사이버 사기 등 여러 유형의 사이버 비행과 관련이 깊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 사이버 비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9)가 발표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권리 침해 737건(47.2%), 음란·선정 345건(22.1%), 사행심 조장 272건(17.4%), 사회질서 위반 200건(12.8%), 폭력·잔혹·혐오 8건(0.5%) 순으로 신고·접수되었다.

그런데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에서 인터넷 윤리의식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주목할 만하다(Mann & Sutton, 1998; 구본희·최무진, 2006; 김효정 외, 2007; 김문구·박종현, 2008). 즉,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인터넷 윤리의식이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터넷 윤리의식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이버 비행의 사전예방이나 사후해결을 위한 개입방안이 검토되

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한 마디로 말해, 사이버 비행의 문제는 기술적인 접근이나 법제도적인 접근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윤리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있다(백승익 외, 2007; 이기식, 2007). 그러므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 세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특히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의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만약 위 세 변수 사이의 인과성이 검증된다면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인터넷 중독을 낮추거나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부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가운데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중학생이다. 예를 들면, 고영삼과 조용원(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오용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정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인정된다.

2. 연구의 내용

인터넷의 오·남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유해환경 속에서 형성된 부정적 인터넷 문화 그리고 인터넷 윤리의식의 부재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버 비행을 탐구하는 연구는 이론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실천적 차원에서 실용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윤리, 그리고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되, 특히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의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위 세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터넷 윤리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한다.

지금까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을 주제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 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단편적인 성격의 연구 혹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들이었다. 반면에,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인과모형의 검증을 통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윤리 및 사이버 비행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이론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현상이다. 인터넷 중독을 사이버 비행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이소희·성윤숙, 2001; 이성식, 2005a)이 있는가 하면, 양자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그리고 이 두 현상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비교적 다양하다.

먼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인터넷 특성이론’과 ‘욕구충족이론’이 있다. 전자는 인터넷에 중독적으로 탐닉하는 원인을 인터넷의 높은 자극 또는 흥분, 시·공간적 한계의 극복, 강한 친밀감과 사회적 관계감, 시간 지각의 왜곡 또는 시간 개념의 상실, 개방성, 익명성, 쌍방향성, 탈-억제(disinhibition) 현상 등과 같은 인터넷 자체의 특성에서 찾는 이론이다(Kiesler et al., 1984; King, 1996; Greenfield, 1999; 장일순, 2000; 송명준 외, 2005). 후자는 인터넷 자체의 속성을 통해서 강화되는 인간의 계층적 욕구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Suler(1996)는 Maslow(1954)의 욕구단계설(생리적 욕구 - 안전 욕구 - 사회적 욕구 - 존경 욕구 - 자아 실현 욕구)을 근거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 비행의 원인과 지속요인을 설명하려는 이론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이다(이성식, 2009; 정혜원, 2009; 2010). 첫째, 사회유대이론 혹은 사회통제이론은 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화되거나 깨질 때 비행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Hirschi, 1969; 한종욱, 2001; Lee & Lee, 2002). 인터넷 이용의 경우, 인터넷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 혹은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약해지며 결과적으로 사이버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 둘째, 자기통제이론은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사이버 비행의 원인이라고 본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성식, 2005a). 범죄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e)에서 보면 청소년 사이버 비행의 직접적이지 유일한 원인은 자기통제력의 부족이다. 셋째, 비행기회이론은 청소년들이 비행기회를 많이 접할수록 실제로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이론이다(Sampson & Lauritsen, 1990; 이성식, 2005a). 즉,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우연한 비행기회에 더 많이 노출되므로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가 높아진다.

2.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의 개념과 영향요인

가.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및 증상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은 인터넷의 역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개념이 Goldberg(1996)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인터넷 중독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며 아직 학계에는 인터넷 중독의 정의 및 진단기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김청택 외(2002)의 정의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학자들마다 인터넷 중독의 정의는 다르지만, 인터넷 중독자는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이탈행동과 현실구분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김청택 외, 2002; Widyanto & McMurrin, 2004). 첫째, 인터넷 중독자는 인터넷의 사용에 강박적 집착을 보인다. 이들은 인터넷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함,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이유로 불쾌한 기분이 들 때도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찾는다. 둘째, 인터넷 중독자는 내성과 금단을 겪는다. 내성(tolerance)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인터넷에 몰입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내용도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나서는 현상이다. 금단(withdrawal)이란 인터넷 중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의 기능장애를 야기한다. 성인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부부관계의 악화로 인한 가정 문제, 직장에서의 상사·동료와의 갈등 문제 등이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 학생들의 경우 성적 부진, 대인관계의 문제, 기분조절 장애, 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경험한다. 끝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탐닉하게 되면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되며, 사이버 상의 세계를 마치 실제 세계인 양 착각하게 된다. 이 경우 가상공간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더불어 인터넷 중독자는 자신이 범 죄나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감을 갖지 못하므로 보다 쉽게 일탈행동에 빠질 위험이 있다.

2) 인터넷 중독의 측정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인터넷 중독 척도는 대부분 청소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는 비교적 드물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인터넷 중독 척도는 Young(1998)의 척도, 강만철과 오익수(2001)의 척도, 김청택 외(2002)의 한국형 인터넷 자가진단 척도(K-척도), 김동일 외(2008)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등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는 김동일 외(2008)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이다. 이 척도는 기존의 K-척도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척도는 4점 척도 2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요인은 일상생활 장애, 긍정적 기대,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 내성의 6개의 영역이다.

나. 인터넷 윤리

1) 인터넷 윤리의 개념 및 중요성

최근 들어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유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규범윤리학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새로운 윤리, 즉 인터넷 윤리를 등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련된 행동의 기준을 다룬다(John, 2000).

현재 학계에서는 인터넷 윤리와 관련 있는 개념으로 정보윤리, 정보통신윤리, 사이버 윤리, 컴퓨터 윤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학자들 간에 인터넷 윤리의 개념 정의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윤리에 관한 연구가 윤리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컴퓨터공학, 경영정보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증첩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구본희·최무진, 2008).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된 여러 용어들이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 용어들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인터넷 윤리(Internet ethic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구본희와 최무진(2008)에 의하면,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 폭력 등과 같은 사이버 비행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처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윤리의 정립과 확산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보다 인간 중심의 서비스로 진화시켜 삶의 질과 사회복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김문구·박종현, 2008). 첫째, 사이버 비행에 대한 기술차원의 대책은 효과성 면에서 제한적이다. 정보통신 기술상의 보안이나 차단과 같은 기술적인 대책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 조치로 끝날 개연성이 높으며 또한 지속적인 기술대책을 위한 금전 및 시간 비용에 비하여 그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둘째, 법적·제도적 개입의 한계성이다. 법령의 제·개정이나 제도의 신설 또는 강화를 통한 개입은 사이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사후 처방이나 제재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터넷 윤리에 기반을 둔 인터넷 문화의 확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인터넷 윤리의 측정

인터넷 윤리는 여러 학자들이 개발한 다양한 척도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추병완, 2001; 김민선·백승익, 2004; 김유미, 2007; 백승익 외, 2007; 김성식 외, 2009). 예를 들면, 추병완(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를 구성하는 3개의 하위요인을 타인존중, 책임성, 건전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인터넷 윤리를 관통하는 4가지 도덕 원리로서 존중, 절제, 정의, 해악금지를 제시하였다. 한편, 김성식 외(2009)는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수준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절제, 존중, 책임, 참여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넷 윤리의 영향요인

아직까지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인터넷 윤리의 본질을 탐구하거나 인터넷 윤리의 역기능에 관한 실태조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인터넷 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김문구·박종현, 2008).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고찰의 필요가 있는 영향요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성별, 학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교성적,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윤리 강의의 수강 경험, 가정용 컴퓨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등이다.

첫째, 성별과 인터넷 윤리의식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먼저,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 윤리수준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다(김문구·박종현, 2008). 반면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도 있다(이철현, 2005; 김성식 외, 2009). 끝으로, 성별에 따른 인터넷 윤리의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다(Young, 2000).

둘째, 학년이나 연령은 인터넷 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성식 외(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 2학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철현(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년 혹은 연령에 따른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교 성적은 인터넷 윤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이철현(200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수준이 더 높았다.

넷째, 인터넷 사용시간(주당 인터넷 이용 횟수, 1회 이용 시간 등)은 인터넷 윤리에 영향을 미친다(이철현, 2005; 김문구·박종현, 2008). 예컨대, 이철현(2005)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주당 인터넷 이용 회수에 따라 정보통신 윤리수준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주당 인터넷 이용이 매우 드물거나 매우 빈번한 경우는 정보통신 윤리수준이 낮은 반면, 중간 집단(주당 7~14회)의 정보통신 윤리수준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인터넷 윤리에 관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은 인터넷 윤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경수 외(2002)의 연구에서는 정보윤리 교육정도에 따라 정보윤리의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끝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유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와 인터넷 윤리의식의 수준 사이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선행연구는 검색되지 않으나 몇몇 선행연구를 통해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유해 차단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가족의 통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의 인터넷 사용 통제는 인터넷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진연주와 김혜연(2002)에 의하면, 가족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가 약할수록 정보윤리 영역 중 음란물 접촉행위를 지속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이버 비행

1) 사이버 비행의 개념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범주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일탈’, ‘컴퓨터 범죄’, ‘정보통신 범죄’, ‘하이테크 범죄’ 등으로 일컬어진다.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범죄(crime)’ 대신에 ‘비행(delinquency)’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이정숙·안윤영, 2005) 이는 청소년의 규범 위반을 법적인 측면에서 범죄로 재단하기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현상의 일종으로 간주하려는 사회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cyber-delinquency)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거나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청소년 비행을 말한다. 협의의 청소년 사이버 비행은 법에 저촉되는 사이버범죄를 말하지만 그 외에 단순한 욕설이나 인터넷음란물 접촉 등의 문 제행동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반 행동을 포함한다(이성식, 2005a).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지위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으로 나눌 수 있다(라민오, 2001; 이정숙·안윤영, 2005). 지위비행은 나이를 속이고 대화방에 들어가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수업에 불참하는 행위 등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지위 또는 연령에 맞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성비행은 채팅과정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웹상에 음란물을 올리는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性)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재산비행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물적·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말한다. 폭력비행은 채팅과정에서 욕설을 하거나 게임 도중에 무리를 결성하여 다른 게이머를 공격하는 행위 등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 비행의 측정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의하면, 사이버 비행 척도는 측정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는 라민오(2001)의 척도, 이정숙과 안윤영(2005)의 척도가 있다. 먼저, 라민오(2001)의 척도는 심웅철(1992)이 개발한 척도를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35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이 척도는 조남근과 양돈규(2001)의 연구에서 수정되었으며, 척도의 하위요인은 지위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으로 나뉜다. 이정숙과 안윤영(2005)의 척도는 라민오(2001)의 척도 문항 가운데 초등학교에 맞도록 성비행과 재산비행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여 28문항으로 축소·수정한 것이며, 이 척도의 하위요인 역시 지위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사이버 비행의 영향요인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환경요인, 개인성향요인, 비행기회요인으로 구분하는데(이성식, 2006; 2009), 이 세 가지 요인은 구체적인 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고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세부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연령),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교 성적,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강의의 수강경험,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유무 등이다.

첫째, 성별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이버 비행의 경향이 더 높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양돈규, 2000; 윤영민, 2000; 라민오, 2001; 김민, 2003; 김희화, 2003; 이경남·하연미, 2004; 이성식, 2005a, 2006, 2007; 이정숙·안윤영, 2005; Cho & Cheon, 2005; 홍성훈·김희수, 2007; 정혜원, 2009; Wolfe & Higgins, 2009).

둘째, 학년 또는 연령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년이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이버 비행의 경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양돈규, 2000; 김희화, 2003; 성동규·김도희 외, 2006). 한편, 정소희(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 초기 단계에는 높았으나 청소년 중기에 가장 낮아졌다가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어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곡선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성식(2008)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연령이 사이버범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학업 성적과 사이버 비행의 관련성은 일반긴장이론의 시각에서 잘 설명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학업부적응 등 현실에서의 긴장이나 스트레스 또는 역할 상의 문제를 겪는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으며(윤영민, 2000), 그만큼 사이버 공간 안에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정혜원, 2010).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많다(Mitchell et al., 2003; 이성식, 2005a; 정혜원, 2010).

넷째, 인터넷 사용시간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비행의 발생이 우연한 범죄기회에의 노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과 마찬가지로 (Osgood et al., 1996; Landsheer & Van Dijkum, 2005),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이버 비행의 관련성도 비행기회이론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연한 비행기회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나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수록 사이버 비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민, 2003; 이성식, 2005b; 2006; 2007; 2009; 2010; 성동규 외, 2006; 정혜원, 2009; 2010; 유상미·김미량, 2010).

다섯째,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강의의 수강 경험은 사이버 비행의 감소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인간의 태도와 윤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며 장기적으로 주관적 규범 형성에 도움을 주어 일탈행위의 감소에 기여한다(유상미·김미량, 2010). 실제로, 유상미와 김미량(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보규범 학습 경험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주관적 규범을 낮추었고 이는 다시 사이버 비행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컴퓨터에 대한 유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의하면,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 생기는 감독(supervision)의 결핍은 청소년의 비행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또한 Cho와 Cheon(2005)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할수록 부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노출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해차단 프로그램의 설치하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낮추는 의미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Dombrowski et al., 2007). 유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하는 환경적 요인이자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김희화(2003)의 연구와 이경남과 하연미(2004)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음란영상물への 노출 정도를 조사한 Mitchell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유해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가 사이버 비행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 인터넷 중독, 사이버 비행, 인터넷 윤리 사이의 관계

가.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은 그 자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기술의 유포에도 매우 효과적인 매체이다(Mann & Sutton, 1998).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행동 또는 비행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Mann & Sutton, 1998; 양돈규, 2000; 라민오, 2001; 조남근·양돈규, 2001; 김민, 2003; 성운숙, 2004; 이성식, 2005b; 전숙영 외, 2005; 김계원·서진완,

2009).

예를 들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성향과 인터넷 관련 비행 사이의 상관성을 연구한 양돈규(2000)의 연구는 이 두 변수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서울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김계원과 서진완(200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 범죄의 원인 변수(즉, 우울감, 주위 낙인, 유희적 성취감, 개인 윤리의식, 범죄 친구 접촉, 사이버 공동체 윤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나.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알려졌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nn & Sutton, 1998; 양돈규, 2000; 이철현, 2005; 구분희·최무진, 2006; 김호정 외, 2007). 예를 들면, 대학생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이철현(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정보통신 윤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성향과 정보통신 윤리 의식 사이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성향의 차이에 따라 정보통신 윤리 의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 사용자군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이 그 뒤를 이었으며 고위험사용자군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가장 낮았다.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의 관계를 탐구한 구분희와 최무진(2006)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의 구성요인 모두가 인터넷 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정보윤리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이 정보윤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이 인터넷 중독의 구성요인을 거쳐 궁극적으로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인터넷 윤리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여러 선행연구는 인터넷 윤리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즉, 인터넷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이 감소한다(김수정, 2004; 성동규 외, 2006; 이성식, 2006; 2007; 2008; 김문구·박종현, 2008; Wolfe & Higgins, 2009).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의도를 조사한 이성식(2008)의 연구에서 인터넷 윤리는 사이버 비행의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성동규 외(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이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조사한 김수정(2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동시에 정보통신 윤리가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윤리의식 중에서 불건전한 정보유통에 대한 윤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의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국내외를 통틀어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아직 이 세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검색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관련 논의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 세 변수들 중 특정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본희와 최무진(2006: 6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중독

이 이용자의 인터넷 윤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상의 각종 비행 및 불건전 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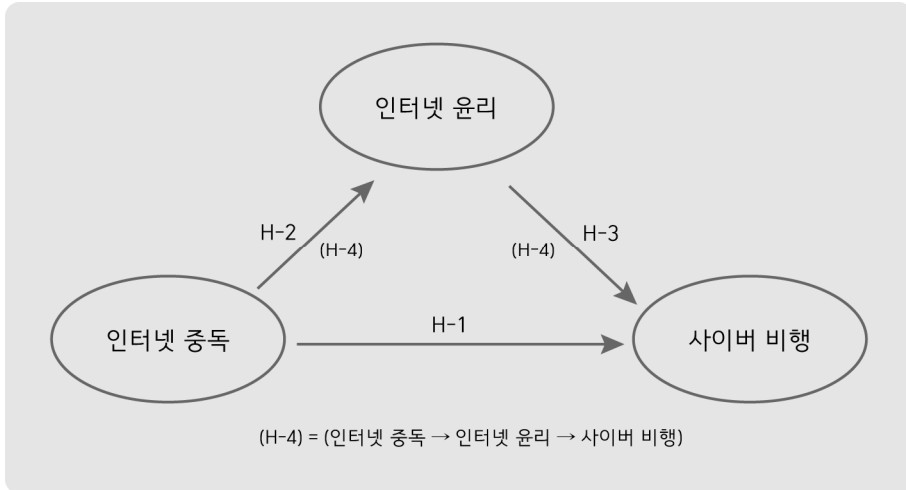
또한 몇몇 선행연구는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Mann & Sutton, 1998; 김효정 외, 2007; 김문구·박종현, 2008). 예를 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특성과 인터넷 폭력 가해 경험 사이의 관계에서 인터넷 윤리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김문구와 박종현(2008)의 연구에서 성인의 인터넷의 1회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윤리수준이 낮아지며, 인터넷 윤리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터넷 윤리수준이 인터넷의 병리적 이용과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가정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nn과 Sutton(199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공간의 윤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 비행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인터넷 윤리를 매개로 사이버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4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H-1: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인터넷 윤리는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비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 조사대상자 및 표본추출

본 연구는 G광역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연구이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G광역시이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G광역시의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이용 현황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즉, 2010년 현재 전국의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은 81.8%이고 인터넷 이용률은 77.8%인데 반해, G광역시의 가구별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은 각각 84.8%와 81.0%에 이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중학생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진학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진학 청소년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진학 청소년 중 중학생 집단이다.

2010년 말 현재 G광역시의 중학교 수는 85개교이었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2). G

광역시외의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생을 중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초등학생 모두는 특정 중학교에 배정될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중학교는 학생 층위 면에서 일정한 대표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G광역시 소재하는 중학교 가운데 조사대상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어서 해당 중학교의 1학년과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학년과 3학년은 심리적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터넷 이용 및 사이버 비행과 관련하여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사이버 비행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비행을 측정하기 위하여 라민오(2001)의 연구에서 개발·사용되었고, 조남근과 양돈규(2001)가 수정한 사이버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예/아니요’ 방식으로 응답하는 35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후 척도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9문항(폭력 비행 6문항과 성비행 3문항)을 통계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 척도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리코딩하였다. 조남근과 양돈규(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0.90$ 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0.745$ 로 분석되었다.

나.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중학생의 성별, 학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학교 성적,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 윤리 강의의 수강경험, 가정에서의 유해차단 프로그램 설치여부이다. 먼저, 학교 성적은 학년 전체 석차를 기준으로 5단계(상, 상중, 중, 중하, 하)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분석 단계에서 3집단(상위집단, 중간집단, 하위집단)으로 통합하였

다.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은 5단계(1주일에 2시간 미만, 2시간~6시간 미만, 6시간~12시간 미만, 12시간~18시간 미만, 18시간 이상)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분석단계에서 2집단(주당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으로 통합하였다. 인터넷 윤리 강의의 수강경험은 지금까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가를 ‘예/아니요’로 측정하였다. 유헤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는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PC 사용 내역 조회, 이용시간 설정, ‘아이보호’ 혹은 ‘천사보호’ 등의 보호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터넷 중독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일 외(2008)가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는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15문항을 분석의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이 척도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에서 개발할 당시의 신뢰도는 $\alpha=0.90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0.772$ 로 조사되었다.

다.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여기서 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심의 정보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규범’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윤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유미(2007)가 개발한 리커트 5점 척도 20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분석 단계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13문항만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척도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리코딩하였다. 김유미(200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0.77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0.617$ 로 분석되었다.

4. 설문조사 분석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는 집단조사(group survey)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연구자가 설문조사 대상 중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등 자료수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2010년 4~5월에 반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설문조사 기간 중에 도합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현장에서 576부를 수거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와 이상치가 포함된 53부를 제외하고, 유효 설문지 498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학생 498명의 개인적 배경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 응답자의 42.6%인 반면, 여성은 전체의 57.4%이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전체의 56.6%이고, 3학년이 전체의 43.4%이다. 조사대상자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학교 성적은 상위집단, 중간집단, 하위집단이 각각 전체의 31.3%, 35.5%, 33.1%로 집계되었다.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을 보면 일주일에 6시간 미만인 조사대상자가 전체의 66.5%인 반면, 6시간 이상은 전체의 33.5%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인터넷 윤리 관련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7.6%로 조사되었으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2.4%로 나타났다. 끝으로, 응답자의 가정용 컴퓨터에 유해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0%인 반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5.8%로 분석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212	42.6
	여성	286	57.4
학년	1학년	282	56.6
	3학년	216	43.4
주관적인 학교 성적	상위집단	156	31.3
	중간집단	177	35.5
	하위집단	165	33.1
인터넷 사용시간	주당 6시간 미만	331	66.5
	주당 6시간 이상	167	33.5
인터넷 윤리 수강 경험	있음	187	37.6
	없음	311	62.4
컴퓨터에 설치된 유해차단 프로그램	있음	219	44.0
	없음	278	55.8
계		498	100.0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은 5점 만점을 기준할 때 평균 1.59점(표준편차 0.52)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뜻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터넷 윤리의식의 수준은 평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4.29점(표준편차 0.54)을 보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점수가 5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4.35점으로 조사된 이철현(2005)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끝으로, 사이버 비행은 1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0.24점(표준편차 0.23)으로 분석되었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윤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다($r=-0.32$, $p<0.01$). 이 결과는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r=0.40$, $p<0.01$), 이것은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는데($r=-0.31, p<0.01$), 이것은 인터넷 윤리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려준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구분	M	SD	(1)	(2)	(3)	(4)	(5)	(6)	(7)	(8)	(9)
(1)성별	1.57	0.50	1.00								
(2)학년	1.43	0.50	0.02	1.00							
(3)성적	2.02	0.80	0.06	-0.04	1.00						
(4)인터넷 사용시간	1.34	0.47	-0.09*	0.29**	0.05	1.00					
(5)윤리강의 수강경험	1.62	0.49	0.01	-0.07	0.25**	-0.02	1.00				
(6)유해차단 프로그램	1.56	0.50	-0.07	0.05	0.13**	0.04	0.21**	1.00			
(7)인터넷 중독	1.59	0.52	-0.22**	0.27**	0.08	0.42**	0.02	0.11*	1.00		
(8)인터넷 윤리	4.29	0.54	0.23*	-0.14**	-0.17**	-0.21**	-0.03	-0.08	-0.32**	1.00	
(9)사이버 비행	0.24	0.23	-0.30**	0.13**	0.07	0.11*	0.06	0.12**	0.40**	-0.31**	1.00

* $p<0.05$ ** $p<0.01$ *** $p<0.001$

주: 성별: 남성=1, 여성=2. 학년: 1=1학년, 2=3학년. 성적: 1=상위집단, 2=중간집단, 3=하위집단. 인터넷 사용시간: 1=주당 6시간 미만, 2=주당 6시간 이상. 윤리강의 수강경험: 1=있음, 2=없음. 유해차단 프로그램: 1=있음, 2=없음. 인터넷 중독: 4점척도(1점~4점). 인터넷 윤리: 5점척도(1점~5점). 사이버 비행: 2점 척도(0점~1점).

3. 주요 변수 간의 인과관계

가.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인터넷 중독 수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먼저 통제변수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F=10.541, p<0.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R^2=0.131$ 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과 학년이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사이버 비행을 경험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으며, 3학년 학생이 1학년에 비해 사이버 비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터넷 중독 수준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7.481$, $p<0.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R^2=0.222$ 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비행에 대하여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0.348$, $p<0.001$), R^2 증가량은 0.091로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1$).

표 3.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사이버 비행				
		모형 1		모형 2		
		b	β	b	β	
통제 변수	성별(여자=0) 남자	0.141***	0.307***	0.111***	0.242***	
	학년(1학년=0) 3학년	0.058**	0.128**	0.031	0.068	
	성적(상위집단=0) 중간집단	0.046	0.097	0.034	0.071	
	하위집단	0.038	0.079	0.024	0.050	
	인터넷 사용시간(주당 6시간 미만=0) 주당 6시간 이상	0.019	0.041	-0.038	-0.079	
	인터넷 윤리 수강경험(있음=0) 없음	0.020	0.042	0.018	0.038	
	유해차단 프로그램(있음=0) 없음	0.031	0.069	0.021	0.047	
	독립 변수	인터넷 중독			0.152***	0.348***
	상수		0.088***		-0.094**	
R^2		0.131		0.222		
R^2 증가량				0.091***		
R^2 증가량에 관한 F값				57.542***		
F		10.541***		17.481***		

* $p<0.05$ ** $p<0.01$ *** $p<0.001$

나.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인터넷 중독 수준이 인터넷 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359$, $p<0.001$), 설명력은 $R^2=0.129$ 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 학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학교 성적 수준, 주당 인터넷 사용 시간이 인터넷 윤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3학년이 1학년보다, 학교 성적이 낮을수록, 주당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윤리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낮았다.

표 4.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인터넷 윤리				
		모형 1		모형 2		
		b	β	b	β	
통 제 변 수	성별(여자=0) 남자	-0.250***	-0.229***	-0.205***	-0.188***	
	학년(1학년=0) 3학년	-0.112*	-0.103*	-0.071	-0.065	
	주관적 성적(상위집단=0) 중간집단	-0.152**	-0.135**	-0.134*	-0.119*	
	하위집단	-0.242***	-0.211***	-0.221***	-0.192***	
	인터넷 사용시간(주당 6시간 미만=0) 주당 6시간 이상	-0.164**	-0.144**	-0.079	-0.069	
	인터넷 윤리 수강경험(있음=0) 없음	0.012	0.011	0.015	0.013	
	유해차단 프로그램(있음=0) 없음	-0.033	-0.030	-0.018	-0.017	
	독 립 변 수	인터넷 중독			-0.225***	-0.217***
	상수		4.642***		4.911***	
	R^2		0.129		0.164	
R^2 증가량				0.035***		
R^2 증가량에 대한 F값				20.822***		
F		10.359***		12.033***		

* $p<0.05$ ** $p<0.01$ *** $p<0.001$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인터넷 중독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033$,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R^2=0.164$ 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윤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0.217$, $p<0.001$), R^2 증가량은 0.035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따라서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 수준이 낮아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 인터넷 윤리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표 5. 인터넷 윤리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사이버 비행			
		모형 1		모형 2	
		b	β	b	β
통제 변수	성별(여자=0) 남자	0.141***	0.307***	0.117***	0.256***
	학년(1학년=0) 3학년	0.058**	0.128**	0.048*	0.105*
	주관적 성적(상위집단=0) 중간집단	0.046	0.097	0.032	0.067
	하위집단	0.038	0.079	0.015	0.032
	인터넷 사용시간(주당 6시간미만=0) 주당 6시간 이상	0.019	0.041	0.004	0.008
	인터넷윤리 수강경험(있음=0) 없음	0.020	0.042	0.021	0.045
	유해차단 프로그램(있음=0) 없음	0.031	0.069	0.028	0.062
	독립 변수	인터넷 윤리			-0.094***
상수		0.088***		0.524***	
R^2		0.131		0.175	
R^2 증가량				0.044***	
R^2 증가량에 대한 F값				25.870***	
F		10.541***		12.926***	

* $p<0.05$ ** $p<0.01$ *** $p<0.001$

인터넷 윤리 수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3>에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만을 투입한 <표 5>의 모형 1은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541, p<0.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R^2=0.131$ 로 분석되었다. 모형 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터넷 윤리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2.926, p<0.001$), 개인적 특성 변수 가운데 성별과 학년이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윤리는 사이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0.224, p<0.001$), R^2 증가량은 0.044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라.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에서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에 따라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을 매개하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 매개효과 검증방법의 경우, 독립변수(X)와 매개변수(M), 독립변수와 종속변수(Y),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매개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회귀방정식($X \rightarrow M$)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방정식($X \rightarrow Y$)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회귀방정식($(X, M) \rightarrow Y$)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두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작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 독립변수의 영향이 완전히 없어지면(즉,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이며, 그렇지 않으면(즉,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이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즉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결과는 앞서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의 수

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사이버 비행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성별(여자=0) 남자	0.141***	0.307***	0.111***	0.242***	0.097***	0.211***
	학년(1학년=0) 3학년	0.058**	0.128**	0.031	0.068	0.026	0.057
	주관적 성적(상위집단=0) 중간집단	0.046	0.097	0.034	0.071	0.024	0.051
	하위집단	0.038	0.079	0.024	0.050	0.009	0.018
	인터넷 사용시간(주당 6시간미만=0) 주당 6시간 이상	0.019	0.041	-0.038	-0.079	-0.043*	-0.090*
	인터넷윤리 수강경험(있음=0) 없음	0.020	0.042	0.018	0.038	0.019	0.040
	유해차단 프로그램(있음=0) 없음	0.031	0.069	0.021	0.047	0.020	0.044
	독립 변수	인터넷 중독			0.152***	0.348***	0.136***
매개 변수	인터넷 윤리					-0.069***	-0.165***
	상수	0.088***		-0.094**		0.247**	
	R ²	0.131		0.222		0.245	
	R ² 증가량			0.091***		0.023***	
	R ² 증가량에 대한 F값			57.542***		14.732***	
	F	10.541***		17.481***		17.612***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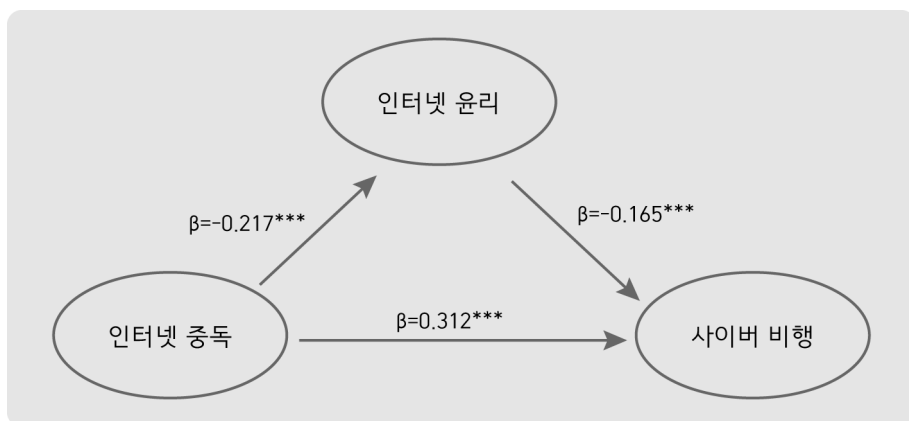
둘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 즉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결과는 <표 3>과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이 늘어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 즉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윤리 그리고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의 분석 결과는 앞서 <표 5>에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모형 2의 분석 결과는 앞서 <표 3>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또한 모형 2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터넷 윤리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7.612$, $p<0.001$), 인터넷 윤리는 사이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0.165$, $p<0.001$). 요컨대, 인터넷 중독(독립변수)과 인터넷 윤리(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인터넷 윤리(매개변수)가 사이버 비행(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할 경우, 인터넷 중독(독립변수)의 사이버 비행(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 즉, 인터넷 윤리가 투입되지 않았을 때의 인터넷 중독의 영향력은 $\beta=0.348$ 인 반면, 인터넷 윤리가 투입되었을 때의 인터넷 중독의 영향력은 $\beta=0.312$ 로 줄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인터넷 윤리가 갖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z=5.217$, $p<0.001$). 이상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V. 논의 및 결론

1.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 및 사이버 비행의 예방 및 감소와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4개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첫째, 가설 H-1(인터넷 중독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관련하여,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에 유의한 양(+)²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양(+)²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1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Mann & Sutton, 1998; 양돈규, 2000; 라민오, 2001; 조남근·양돈규, 2001; 김민, 2003; 이성식, 2005b; 전숙영 외, 2005; 김계원·서진완, 2009)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은 그 자체로서의 장점과 순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은 인터넷의 중독적 이용을 예방하는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가설 H-2(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윤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관련하여, 상관관계분석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윤리 사이에 유의한 음(-)²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높을수록 인터넷 윤리 수준이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가설 H-2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에 음(-)²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Mann & Sutton, 1998; 양돈규, 2000; 이철현, 2005; 구본희·최무진, 2006; 김효정 외, 2007)와 사실상 궤를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인터넷 윤리의식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갖는다. 이로써 중학생의 인터넷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중독적 이용을 예방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가설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가설검증 결과
H-1(인터넷 중독 → 사이버 비행)	양(+)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사이버 비행이 증가함	채택
H-2(인터넷 중독 → 인터넷 윤리)	음(-)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할수록 인터넷 윤리 수준이 낮아짐	채택
H-3(인터넷 윤리 → 사이버 비행)	음(-)의 상관관계	인터넷 윤리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이 감소함	채택
H-4(인터넷 중독 → 인터넷 윤리 → 사이버 비행)	(해당 없음)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을 부분매개함	채택

셋째, 가설 H-3(인터넷 윤리는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관련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모두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윤리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결과(김수정, 2004; 성동규 외, 2006; 이성식, 2006; 2007; 2008; 김문구·박종현, 2008; Wolfe & Higgins, 2009)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은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원인변수인 인터넷 윤리의식의 확립이나 강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가설 H-4(인터넷 윤리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에 따라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Sobel test를 통해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H-4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인터넷 윤리가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몇몇 선행연구의 연구결과(Mann & Sutton, 1998; 김효정 외, 2007; 김문구·박종현, 2008)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본 연

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의 성향이 심할수록 인터넷 윤리가 낮아지며 그 결과 사이버 비행의 정도는 심해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개입은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인과관계의 고리를 끊는 일이며, 가능한 한 앞 단계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터넷 윤리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윤리 사이의 관계, 인터넷 윤리와 사이버 비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을 재확인하고 보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가운데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인터넷 윤리, 사이버 비행 사이의 연쇄적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에 관한 기존의 이론체계를 보강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부터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중학생의 사이버 비행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연쇄관계의 출발점인 인터넷 중독의 예방단계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중독의 성향이 강한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윤리의식이 높으면 사이버 비행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이버 비행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방안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건전한 인터넷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에 관한 가치관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터넷 윤리에 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에서 청소년의 연령 단계에 맞는 인터넷 윤리 소양시험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인터넷 윤리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이 제각각이며 용어의 정의 등이 합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향후 인터넷 윤리의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김경호는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 연구방법 등이다.

(E-mail: khk944@honam.ac.kr)

차은진 호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IT윤리봉사센터의 센터장 및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 연구방법 등이다.

(E-mail: jin1417@hanmail.net)

참고문헌

- 강만철, 오익수(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사회연구, 2, pp.35-62.
- 고영삼, 조용완(2007).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탐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pp.30-48.
-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중학교 현황. <http://www.gen.go.kr>에서 인출.
- 구본희, 최무진(2006). 자아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학연구, 14(1), pp.53-66.
- 김계원, 서진완(2009).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123-148.
- 김동일, 김동민, 고영삼, 엄나래(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기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문구, 박종현(2008). 국내 성인의 인터넷 윤리수준 영향요인과 인터넷 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3, pp.65-91.
- 김민(2003).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섹스 중독실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5(1), pp.53-83.
- 김민선, 백승익(2004).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도구의 개발. 한국경영정보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89-196.
- 김성식, 유형근, 이채영, 조성환(2009). 중학생용 정보통신윤리의식 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2(1), pp.145-169.
- 김수정(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pp.61-88.
- 김유미(2007). 중학생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컴퓨터 게임중독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서울.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2).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효정, 유상진, 구본희(2007). 개인 특성 및 인터넷 활용 특성이 인터넷 중독 및 정보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48, pp.101-124.
- 김희화(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모감독과 심리적 통제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pp.133-153.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춘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백승익, 조남재, 이인, 강진우, 김봉준(2007). 사이버 윤리지표 개발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 미국, 인도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4(1), pp.85-101.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 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pp.79-129.

성윤숙(2004).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과 사이버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pp.37-57.

송명준, 허유정, 이은정, 권정혜(2005). 인터넷 중독: 중독적 특성, 중독의 결과 및 중독자의 하위유형. 심리검사 및 상담연구, 5(1), pp.311-323.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중독 경향 및 인터넷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pp.117-136.

유상미, 김미량(2010). 실천적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위한 사이버 일탈행위 분석.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3(5), pp.51-70.

윤영민(2000). 청소년 인터넷 사용: 분석모형의 개발. 정보와 사회, 2, pp.133-153.

이경남, 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비행과 관련 변인간의 경로 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pp.127-143.

이기식(2007). 인터넷시대 사이버윤리(Cyber Ethics)의 영향요인 분석: 매체-내용-상황-문화관점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pp.49-76.

이성식(2005a).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경험연구. 형사정책연구, 16(3), pp.145-174.

_____(2005b). 인터넷 중독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정보화정책, 12(3), pp.35-47.

_____(2006).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형사정책, 18(2), pp.421-440.

_____(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 정보화정책, 14(3), pp.3-15.
- _____(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pp.187-206.
- _____(2009). 초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있어서 일상긴장, 낮은 자기통제력, 인터넷 사용시간의 영향작용: 세 이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pp.95-115.
- _____(2010).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이론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일반이론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1), pp.203-223.
- 이소희, 성윤숙(2001). 인터넷 음란정보와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청소년복지연구, 3(1), pp.111-124.
- 이정숙, 안윤영(2005). 초등학생의 컴퓨터사용과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pp.225-254.
- 이철현(2005). 교내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중독 성향과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의 관계. 교육논총, 25(2), pp.115-145.
- 장일순(2000).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8, pp.65-83.
- 전숙영, 안윤영, 이정숙(2005).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9(3), pp.487-503.
- 정경수, 정성미, 박용재(2002). 직업과 기질 윤리교육수준에 따른 정보윤리의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 25, pp.151-17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9).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 동향분석.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소희(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pp.31-64.
- 정혜원(2009). 사이버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 사회유대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6(4), pp.97-112.
- _____(2010). 청소년단계에서 사이버 비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 비행기회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263-288.
- 조남근, 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pp.91-111.
- 진연주, 김혜연(2002). 청소년의 인터넷 정보윤리의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

- 정관리학회지, 20(5), pp.99-112.
- 추병완(2001). *정보윤리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울력.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0). 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기홍, 최은구, 안권순(2006). 인터넷 중독과 충동성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pp.409-428.
- 한중욱(2001). 청소년 사이버비행자의 사회유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3, pp.357-384.
- 홍성훈, 김희수(2007).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3), pp.193-216.
- Cho, C.-H., Cheon, H. J.(2005). Children's exposure to negative Internet content: Effects of family contex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9(4), pp.488-509.
- Dombrowski, S. C., Gischlar, K. L., Durst, T.(2007). Safeguarding young people from cyber pornography and cyber sexual predation: A major dilemma of the Internet. *Child Abuse Review*, 16, pp.153-170.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January 31, 2011, from <http://www-usr.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Gottfredson, M. R.,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eenfield, D. N.(1999). *Virtual addiction*, Oakland, CA: New Harbinger Publications.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hn, N. R.(2000). The ethics of the click: Users and digital information in the Internet age. *Libri*, 50, pp.129-135.
- Kiesler, S., Siegel, J., McGuire, T. W.(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pp.1123-1134.
- King, S. A.(1996). Is the Internet addictive, or are addicts using the Internet?

- Retrieved January 31, 2011, from <http://rdz.stjohns.edu/~storm/iad.html>.
- Landsheer, J. A., Van Dijkum, C.(2005). Male and female delinquency trajectories from pre through middle adolescence and their continuation in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40, pp.729-748.
- Lee, J., Lee, Y.(2002). A holistic model of computer abuse within organizations. *Information Management & Computer Security*, 10(2/3), pp.57-63.
- Mann, D., Sutton, M.(1998). Net crime: More change in the organization of thieving,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8(2), pp.201-229.
- Maslow, A.(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 Mitchell, K. J., Finkelhor, D., Wolak, J.(2003). The exposure of youth to unwanted sexual material on the Internet. *Youth and Society*, 34(3), pp.330-358.
- Osgood, D. W., Wilson, J. K. O'Malley, P. M., Bachman, J. G., Johnston, L. D.(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pp.635-655.
- Sampson, R. J., Lauritsen, J. L.(1990). Deviant lifestyle,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7, pp.110-139.
- Straker, L., Pollock, C., Maslen, B.(2009). Principles for the wise use of computers by children. *Ergonomics*, 52(11), pp.1386-1401.
-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Retrieved January 31, 2011, from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ybaddict.html>.
- Widyanto, L., McMurrin, M.(2004).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net addiction test. *CyberPsychology & Behavior*, 7(4), pp.443-450.
- Wolfe, S. E., Higgins, G. E.(2009). Explaining deviant peer associations: An examination of low self-control, ethical predispositions, definitions, and digital piracy. *Western Criminology Review*, 10(1), pp.43-55.
- Young, K. S.(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pp.237-244.

Young, K. S.(2000). Computer ethics: Gender effects and employee Internet misuse.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10(2), pp.598-603.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Ethics

Kim, Kyung Ho

(Honam University)

Cha, Eun Jin

(Honam University)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e Internet has become a vital tool for many Korean adolescents today. However, in spite of its merits, the Internet does pose some serious problems including cyber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ethics in this relationship. Following a previous literature review,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 total of 498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using SPSS 13.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ternet addiction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cyber delinquency; (2) Internet addiction has a direct relationship with Internet ethics; (3) Internet ethics have an inverse relationship with cyber delinquency; and (4) Internet ethics could be a mediating variable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 number of recommenda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preventing and alleviating Internet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Keywords: Internet Addiction, Internet Ethics, Cyber Delinquency, Mediating Effect